

李景嚴의 斜川庄 경영과 『斜川詩帖』의 의미 재론

김은정

1. 서론
2. 斜川庄 경영의 배경
2.1. 정치적 배경
2.2. 경제적 배경
3. 斜川庄의 명소화 과정
3.1. 八景의 지정 및 別墅圖 제작
3.2. 歸去來의 의미 부여와 『斜川詩帖』
4. 斜川庄의 학술·문화적 의의
5. 결론

1. 서론

『斜川詩帖』은 李景嚴(1579-1652)¹⁾이 경영한 楊根의 斜川庄을 그린 李信欽의 <斜川庄八景圖>에 여러 문인의 시문을 모아 春夏秋冬 4첩으로 제첩한 시첩이다.²⁾ 『사천시첩』은 최근에 미술사 분야에서 조규희에 의해 조선의 別墅문화와 別墅圖 제작에 관한 고찰로서 연구되었다.³⁾ 또한 문학 분야에서는 권경록이 이 시첩에 나타나 있는 17세기 문인들의 문학공간에 대한

1) 李景嚴의 생애와 그의 시조·가사에 대해서는 진동혁의 「새 자료 李景嚴(1579~1652)의 時調」(『시조학논총』 12, 한국시조학회, 1996), 「李景嚴의 時調 연구」(『국어국문학』 118, 1997), 「李景嚴의 斜川歸田歌 研究」(『고시가연구』 5, 1998)을 참조.
2) 『斜川詩帖』은 원충희 편찬으로 1972년에 보진재에서 영인되었다. 이 시첩은 延安 李氏 李好閱의 자손들 사이에서 세전가보로 전존하던 시화첩이 고미술 애호가 東滄 元忠喜에게 양도되어 300부 한정으로 영인 발행한 것이다. 필자는 근역문화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시첩을 열람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3) 조규희, 「所有地 그림의 시각언어와 기능-〈石亭處士幽居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3, 미술사와시각문화학회, 2004 ; 「朝鮮時代 別墅圖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6.

인식과 문학적 표현을 살펴 보았다.⁴⁾ 특히 그는 시첩 소재의 여러 문인들이 지은 八景詩는 직접 체험하고 유람한 산수자연의 미감과 정취를 형상화한 것으로, 陶淵明의 시에 차운한 것은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체험으로서의 유가적 進退觀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사천시첩』은 眞景山水로의 변이 조짐을 보이면서 문인들의 은일의식을 문학화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천시첩』 소재 시문의 의의를 밝혔다는 功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로운 문학공간의 형성이 가능하였던 사회적인 배경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면이 있으며, 일부 자료의 오독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사천시첩』 소재의 시문을 다시 살펴서 李景嚴의 斜川庄 경영의 경위를 다시 밝히고, 당시 近畿의 여기저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田庄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사천장이 명소가 되는 과정과 『사천시첩』의 형성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여, 斜川庄의 문화적 의미를 추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주제는 이미 선행 연구로 밝혀진 바이지만,⁵⁾ 이경엄의 사천장 경영의 시점 및 이경엄의 進退와 연결한 논의가 결여되었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 斜川庄 경영의 배경

2.1. 정치적 배경

李景嚴의 延安 李氏 집안은 楊根의 馬遊山을 선영으로 삼았는데, 현재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일대이다. 이경엄이 그곳에 別墅인 斜川庄을 정비한 시점에 대해서 조규희는 1617년에 쓰인 任叔英의 <題斜川庄八景圖>와 金中淸의 <斜川庄八詠>과 1618년에 쓰인 이경엄 자신의 글을 통해⁶⁾ 1617년을 전후한 시기에 ‘斜川’이란 堂號를 사용하여 별서를 신축하였

4) 권경록, 「『斜川詩帖』에 나타난 문인들의 문학공간과 그 형상화」, 『한국어문학연구』 49, 한국어문학연구회, 2007.

5) 조규희, 박사논문, 141-143면. 권경록, 전계논문, 9-14면.

6) 이상의 글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다고 추정하였다.⁷⁾ 그런데 이경엄이 지은 다음 시조를 살펴 보면 斜川庄 경영은 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⁸⁾

<門岩黃犬> 癸丑秋

門 바회 누른 개야 어니 히에 예원논다
百二函關의 너 업다 아니하라
두어라 斜川老居士는 너 우도록 살오리라

<斜川夜酌> 甲寅春

斜川細雨 딴 밤의 버들 만나 마늘하니
山中風景이 일마다 奇事로다.
아히야 盞 7득 브어라 不醉無歸 흐리라

각각 1613년 가을과 1614년 봄에 쓰여진 작품이다. 이들 시조의 내용과 제목에 ‘斜川老居士’ ‘斜川夜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1613년 이전에 이미 이경엄이 별서와 장원을 경영하고 ‘사천’이라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즈음에 이경엄 부자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복잡한 지경에 있었다.⁹⁾ 1612년(광해군 4)에 일어난 金直哉의 무옥에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상 김직재의 무옥은 大北派의 李爾瞻·柳寅吉 등이 小北派 柳永慶 등의 잔당을 제거하려고 일으킨 것인데, 출세욕에 눈이 어두운 봉산군수 申慄이 조작하여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우하고 불평이 많던 金直哉의 일족을 희생물로 삼아 꾸민 무옥이었다.¹⁰⁾ 그런데 金直哉는 이호민의 조카

7) 조규희, 박사논문, 140-143면.

8) 이경엄의 시조는 진동혁의 전계논문(1996, 1997)에서 재인용하였다.

9) 光海君 즉위 후 정권을 장악한 大北 일파는 討逆 논리로서 수많은 獄事를 일으켜 반대파를 제거하였다. 이에 선조대에 이미 실각한 西人은 물론이려니와 서인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南人, 嫡統 시비를 내세워 광해군 즉위를 반대한 小北 역시 밀려나고 말았다.(구덕희, 「선조대 후반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20, 1988; 한명기,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 동향」, 『한국사론』20, 1988; 한명기, 「宣祖代 후반~仁祖代 초반 對明關係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10) 1612년(광해군 4) 2월 황해도 봉산군수 申慄이 御寶와 官印을 위조해 군역을 피하려고 했던 金景立(일명 濟世)을 체포하고, 柳彭錫을 시켜 誣獄을 꾸미게 하였다. 신율은 체포된 김경립으로부터 8도에 각각 大將·別將을 정해 불시에 서울을 함락시키고자 하였다고 허위진술

사위(형 李師閔의 사위)였다. 또한 이 무옥을 일으킨 申慄은 이호민 자신의 사위였다. 즉 이호민은 무옥에 피해자이면서 가담자로서 모두 연루되었던 것이다. 광해군은 이호민의 삭탈관직을 운허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이호민은 관직에서 물러났다.¹¹⁾

이경엄은 이처럼 집안이 우환을 입게 되자 歸田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본래 선영이 있던 곳에 전장을 꾸며 은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경엄은 본격적인 은거를 곧장 실행하지 못한채 1616년 忠原 현감으로 나갔다가, 당시 부친이 城南에서 待命 중인데 부임하였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아 물러났다. 아마도 이경엄은 이 시기에 사천장에의 은거를 본격적으로 실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경엄은 복잡하고 위험한 정계에서 벗어나기를 피해서 在地의 기반이 탄탄한 선영 주변에 畵川庄을 경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연안 이씨의 선영이 서울 주변의 양근이 아닌 먼 지방에 있었다면, 과연 이경엄이 서울 생활을 접고 지방에 내려갔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가 사천장을 적극적으로 경영한 것은 도성에서 가까워 언제든지 다시 서울을 드나들 수 있고,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정계로 복귀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옥사가 끊이지 않았던 광해조에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사대부들이 은거를 표방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천장처럼 도성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의 전장을 경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방안이었다. 이러한 근기 전장의 경영은 당시의 유행이기도 하였는데, 일례로 象村 申欽이 김포에 坎止亭을, 谿谷 張維 역시 선영이 있는 안산에 海藏精舍를, 澤堂 李植이 지평에 澤風堂을 조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방축되었거나 위험한 정국을 피하기 위해 가문의 연고가 깊은 선영이 있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였으며, 공교롭게도 이들의 선영이 모두 近畿 지역이었다. 이후 그들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여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도성에서 가까운 지역에 은거처

을 받았다. 이 역모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八道都大將 金白緘이 아버지 直哉의 失職에 대한 불만을 품고 모역하였다는 진술이었다.

11) 그 후 이호민은 城南에서 待罪하게 되는데, 1614년에는 부인상을 당하여 馬遊山 선영에 장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실세한 인사들이 사회정치적 대처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란의 폐해를 심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近畿지역은 지속적으로 정치·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이후에 西인이 老·少 분기를 하고 숙종대의 당화를 겪으면서도 정계·학계·문학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栗谷학파의 학문적 깊이와 모든 활동의 중심지인 중앙으로부터 가까운 近畿지역을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17세기 전반기에 정치적으로 세력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近畿 지역에 재지적 기반을 갖춘 인물이 李珣·成渾의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면서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이경엄의 斜川庄은 정치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近畿 전장을 경영하여 미래를 대비한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2.2. 경제적 배경

이경엄의 사천장은 정치적으로 실세한 몸을 숨기는 장소이면서 언제든지 다시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이 때 경제적 뒷받침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경엄의 사천장 역시 경제적 토대로서 기능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이경엄이 사천의 특징으로 꼽은 斜川八景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八景이란 특정한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8가지로 집약하는 것인데, 宋의 <瀟湘八景圖>이 전래된 이후로 성립되어, 일상적인 주변 경관에서 보편타당한 미의식을 포착하여 소표제로 삼았다.¹²⁾ 이러한 전통은 조선 전기까지는 서울의 관료문인이 지방의 경치와 특성을 읊었지만, 중기 이후로는 점차 개인의 공간을 八景으로 지정하고 특성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¹³⁾

斜川八景 역시 이경엄의 사적 공간인 斜川庄 주변의 경물과 생활을 드러낸다. 그런데 소표제를 살펴보면 斜川庄이 단순한 은거나 풍류의 장소가 아

12) 김성룡, 『麗末鮮初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221-223면.

13)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3면.

나라, 광범위한 농토를 포함한 대규모 장원임을 알 수 있다.

龍岫晴嵐 : 맑은 날의 龍門山 아지랑이

雲峰皓月 : 白雲峰의 흰 달

舍那尋眞 : 舍那寺에서 尋眞

砧橋勸耕 : 砧橋에서 경작 권하기

門巖洞天 : 門巖의 洞天

乾支松柏 : 乾支山의 소나무와 잣나무

郡城曉角 : 楊根郡 성곽의 새벽 피리소리

蹄灘暮帆 : 蹄灘의 저물녘에 돌아오는 고깃배

사친팔경의 내용은 1618년에 李廷龜가 쓴 <斜川庄八景圖詩序>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정구는 후술할 <斜川庄八景圖>를 보면서 그 지역을 유람했던 기억을 되살리는데, 八景을 일일이 나열하였다.

...전략...

嵐氣라 한 것을 나는 어느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다만 그 아른아른한 공중의 푸른 기운을 기억한다. 달(月)이라 한 것이 나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으나 다만 그 환하게 밝아서 산봉우리와 구렁 사이에 어른어른 비추는 것을 기억한다. 尋眞이라는 것을 나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다만 그 石塔에서 前朝의 고적을 찾아보고 禪龕에서 懶翁禪師의 衣鉢을 보았던 것을 기억한다.

산에서 내려올 때 藍輿에 의지하여 한 石洞을 지나서 큰 시내 셋을 건넜는데, 돌이 문처럼 서로 받쳐져 서 있고 물이 띠처럼 얽혀 흐르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門巖이며 이른바 斜川이다.

산 아래에는 두 촌락이 드문드문 보이고 뽕나무와 산뽕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으니 이는 바로 子陵이 이른바 庄인가? 시내 밖에는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는 소나무와 회나무가 울창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乾支인가? 다리 아래로 큰 들이 펼쳐져 있고 농사일 하는 사람들이 밭에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砧橋인가?

郡齋에서 자고 일어나 성곽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새벽에 출발하여 눈에

가득한 안개 낀 물결에 돛단배가 떴어 있었으니 郡의 피리[角]와 여울의 돛 단배란 것은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겠는가?¹⁴⁾

‘龍岫晴嵐’의 龍門山은 사천장이 위치한 楊根의 鎮山이며, ‘雲峰皓月’의 白雲峰은 용문산의 주봉이다. 즉 제1경과 2경은 사천장에서 바라본 遠景이라 할 수 있다. ‘舍那尋眞’의 舍那寺는 고려의 승려 普愚가 창건한 절인데, 그곳에서의 참선이 또한 사천팔경으로 꼽히고 있다. 제4경인 ‘砧橋勸耕’은 斜川庄의 생활을 소재로 삼은 것이다. 여기서 사천장이 넓은 농토를 포함한 대규모의 전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斜川은 異界나 仙界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 공간인 것이다. 한편, 제5경 門巖洞天에서는 자신의 집 앞에 위치한 門巖으로 洞天을 이룬다고 하고 6경 ‘乾支松柏’에서 乾支의 松柏을 읊조렸는데, 이는 전장의 농사일을 감독하면서도 세상과 떨어져 은거할 수 있는 별천지로서의 의미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7경 ‘郡城曉角’의 城郭에 울리는 새벽 피리소리와 8경 ‘蹄灘暮帆’의 蹄灘의 고깃배 역시 사천에서 생활하며 볼 수 있는 일상을 소재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정구는 八景 외에도 밀줄 친 부분과 같이 언급하여 斜川이 두 마을을 아우르고 많은 농부들이 일하는 드넓은 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다음에 보는 1618년에 쓰인 任叔英의 <斜川庄詩序>에는 田庄으로서의 사천장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전략…

또한 松楸가 늘어서 선영과 가까이 할 수 있어 서리 내릴 때 제사에 정성을 다할 수 있음에라. 강산의 깊은 땅에 길은 수륙에 통달하였으니 실로 서울과 가까웠다. 풍속은 본업에 더욱 부지런하였으니, 뜰에 달려가 가르침을 받들어 돌아오면 곡식 찢을 때가 아니었고 골짜기에 누워있어도 그 즐거움은 勸農하는

14) …전략… 嵐者吾不知爲何物, 而但記其靠微空翠. 月者吾不知其何狀, 而但記其晃朗隱映於峯嶽之間. 尋眞者吾不知其何事, 而但記其石塔訪前朝古跡, 禪龕閱懶翁衣鉢而已. 出山時藍輿扶醉, 過一石洞, 涉三大溪, 石拱之若門, 水縈之如帶, 卽所謂門巖也, 卽所謂斜川也. 山下數村遠, 桑柘依依, 此是子陵之所謂莊耶. 溪外有岡, 松楸鬱蒼, 此是乾支耶. 橋下大野, 農人滿隴, 此是砧橋耶. 郡齋睡起, 城角曉發, 滿眼煙波, 風帆如簇, 郡之角灘之帆, 此也非耶. …하략…(『月沙集』 권40)

데 있었다. 저 성곽 문 십리는 밝은 별서를 따르는 모양이고 궁벽진 고을은 여러 층의 산봉우리가 벌어져 있는 형세였다. 파란 시내를 건너 터를 개척하였고 푸른 골짜기를 가로질러 기반을 열었으니, 붉은 이슬 내리는 것은 북쪽 벽에 새 벽이요, 흰 안개 걷히는 것은 남쪽 창 의 저물녘이라네. …후략…¹⁵⁾

윗글의 앞부분은 별서로서의 사천장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즉 사천장은 ①선영이 가까워 제사에 정성을 다할 수 있고, ②수륙이 통달하여 서울과 가깝고, ③풍속이 순하여 농업에 충실하고, ④집안 어른의 가르침을 받들어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고 자연을 즐기면서도 勸農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당시 별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①선영이 있는 곳, ②서울과 가까운 곳, ③농사를 짓는 전장을 갖출 것, ④학문에 힘쓰고 자연을 즐기면서도 권농을 일삼을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조선은 전란을 겪으며 황폐화된 국토를 재건하는 것을 국가적인 우선 사업으로 삼았고, 일반 사대부들도 가옥을 재건하고 유실된 묘소를 보수하는 등의 일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전란의 복구 작업이 재빨리 진행되면서 在地 기반을 갖춘 사대부들은 개간사업을 주도하고 면세·면역을 모색하고 노비를 확대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게 되었다.¹⁶⁾ 특히 토지를 집적하며 농장을 경영하였는데, 先塋 주변의 토지를 확보하기도 하였다.¹⁷⁾ 그러한 사대부의 대부분은 京邸를 소유하여 서울생활의 근거로 삼고, 서울 근교에 선영과 농장을 소유하여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경업의 사천장은 바로 당시 새로운 사대부의 별서 문화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¹⁸⁾

그런데 사천장은 여타의 近畿 별서·전장보다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요한 유통경로는 한강의 뱃길이었는데,¹⁹⁾ 사

15) …전략… 又況松楸列列, 獲密通於墳塋, 霜露駸駸, 盡處誠於俎豆. 加以江山奧域, 水陸通衢, 封疆則實控神京. 風俗則尤勤本業, 故趨庭奉訓, 其還不至春糧, 臥壑迷時, 其樂兼存勸穡. 爾其郭門十里, 俯昂遵曠墅之形, 窮邑千重, 上下列層巒之勢. 跨青溪而拓址, 橫碧洞而盤基, 朱露垂而北壁晨, 白霧捲而南窓晚. …하략…(『疏庵集』 권5)

16)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士族』, 역사비평사, 2001, 388-403면.

17) 김성우, 앞의 책, 410면-418면.

18) 조규희, 전계논문(2004), 16면.

천장은 바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二水를 마주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전기에도 한강 뱃길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었으나, 임란이후에는 전란과 자연재해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大同法을 제정하고 국제무역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상품화폐경제에 기반한 정책을 다수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었다.²⁰⁾ 이는 농업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점차 상품유통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상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해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하에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길이 만나는 二水 일대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천장은 전장으로서는 이미 경제적 기반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데다가, 새롭게 정비되고 있던 상품유통경제구조에 유리한 지점에 입지해 있었다. 앞서 살핀 사천팔경 가운데 7경 ‘郡城曉角’와 8경 ‘蹄灘暮帆’은 바로 사천장이 남한강을 끼고 있어 물류 유통을 담당할 배들이 오고가서 상업적인 이익이 넘쳐나는 곳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경엄이 주위의 한미한 문사들에게 자주 쌀과 술 등을 보내어 인심을 얻은바 있는데,²¹⁾ 그만큼 이경엄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따라서 사천장은 近畿 장원 가운데에서도 경제의 중심지에 인접해 있어서 경제적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많았고, 이러한 곳에 전장을 경영한 이경엄은 충분한 부를 바탕으로 이후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 본래 한강의 뱃길은 稅穀의 漕運이 이루어지는 경로이자 私船의 운행길로서, 조선조 상업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한강의 뱃길은 용산강에 있던 軍資監 別營倉과 서강에 있던 廣興倉을 두 거점으로 삼아, 충주의 可興倉에서 용산강의 별영창에 이르는 동쪽 뱃길과, 서해 바다에서 서강의 광흥창에 이르는 서쪽 뱃길로 나뉜다. 이중 동쪽 뱃길로 용산에서 京江(楊花津에서 松坡 사이)을 거슬러 오르면 흑석 노량진·동작진·서빙고나루·漢江渡·두뫼개 [豆毛浦]·楮子島·뚝섬·三田渡·松坡를 차례로 지난다. 京江을 벗어나 廣津을 건너 渡迷津(斗尾峽)을 넘으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二水[兩水](현재의 경기도 南楊州市 瓦缶邑 松村里)에 마주하게 된다.

20) 고동환, 「17세기 서울상업체제의 동요와 재편」,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pp.159-168.

21) 이안눌의 <奉謝利川李明府景嚴子陵送米見問>, <李獻納子方自京城枉書 送新曆三部 李使君子陵自利川寄詩惠名酒一盆 數日之內 相繼而至 因題長律以謝之>, <李獻納子方自京城枉書 送新曆三部 李使君子陵自利川寄詩惠名酒一盆 數日之內 相繼而至 因題長律以謝之>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斜川庄의 명소화 과정

3.1. 八景의 지정 및 別墅圖 제작

앞서 이경업의 사천장은 정치적·경제적 의미를 지니는 近畿 田庄이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성리학적 사유로 무장된 사대부들이 이러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표면적으로 좇는 것은 末業을 일삼는 행위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화적인 장치를 통해 자신의 田庄 경영을 공식화하고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바 전장 주변의 八景을 지정하고 이를 八景詩를 통해 기념하는 것이다.

八景詩는 所有主 스스로 짓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여 팔경을 찬미하거나 소유주의 뜻을 칭송하는 시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경업은 본격적으로 팔경시를 부탁하기에 앞서, 당대의 이름난 화원이었던 李信欽(1570-1631)²²⁾에게 斜川八景을 畫題로 삼아 그림을 그리게 하고, 柳希亮(1575-1628)을 시켜 제목으로 ‘斜川庄八景’을 篆書로 쓰게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斜川八景圖>는 전장을 기념하면서도 소유주의 전장에 대한 영향력을 문화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인 別墅圖라 할 수 있다.²³⁾

別墅圖는 사대부가 소유지 주변의 명승·명소를 포함한 산수를 담아서 그곳에 미치는 가문의 영향력을 시각화하고 정치·경제적 지위에 문화적 명성을 얻게 하는 장치였다. 이러한 별서도는 이미 15세기에 성행하여서 사족들이 자신의 소유지 주변을 명승명소화하고자 개별적으로 別墅圖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第宅 외에 別墅를 경영하였던 17세기 京郊土族들은 기록화로 남겨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별서와 주변 전장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도 하였다.

이경업 역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천장팔경도>를 제작하게 하였다.

22) 『근역서화정』에 의하면 李信欽(1570-1631)의 본관은 泰安, 자는 敬立이며, 선조조에 화원이 되어 벼슬이 副司直에 이르렀다.

23) 別墅圖 제작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조규희, 전계논문(2004), 12-16면 및 전계논문(2006), 74-85면.

특히 이경엄의 경우는 ‘○○八景圖’와 같이 전형화된 명승명소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별서도의 문화적 의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팔경을 지정하면서 이미 八景詩를 주변 문인에게 구할 의도가 있었는데, 별서도는 지인에게 시문을 구할 때 전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적인 자료로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 그림을 보면서 팔경을 직접 보지 않고도 팔경시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별서도가 완성된 이후 이경엄은 여러 명현거공에게 본격적으로 <사천장팔경도>를 보이고 거기에 시문을 받아 명승지로서 사천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당시 斜川 이웃인 驪江에는 任叔英을 비롯한 개결한 선비들이 昏朝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²⁴⁾ 이경엄은 1617년 여름에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임숙영에게 이를 보였다. 이에 임숙영은 <題斜川庄八景圖>의 題畫詩로서 사천팔경을 칭송하였다.²⁵⁾ 또한 金中淸(1567~1629)²⁶⁾이 1617년 가을에 <사천장팔경>²⁷⁾을 지어서 八景을 읊었다.

이경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천팔경도>에 八景詩를 덧붙이고자 하였다. 즉 주변의 가까운 인물에게 전장을 기념할 팔경시를 구하여 자신과 전장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였고, 나아가 전장 주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3.2. 歸去來의 의미 부여와 『斜川詩帖』

이경엄은 斜川庄을 경영하면서 八景을 지정하고 <사천팔경도>를 장만 한 뒤에 여러 명현들의 시문을 구하여 여기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시점에 이경엄은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다음에 보이는 『사천시첩』 夏帖 첫머리에는 수록되어 있는 이경엄의 글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4) 김덕수, 「여강(驪江)의 청사(淸士), 수상칠인(水上七人)」, 『문헌과 해석』20, 2002.

25) 『사천시첩』 秋帖. 이 시는 임숙영의 문집 『疎庵集』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6) 金中淸의 본관은 안동, 자는 而和, 호는 晚退軒·苟全이며, 趙穆의 문인이다. 1615년 廢母論에 반대하는 李元翼을 탄핵하라는 대북과 鄭仁弘의 부탁을 거절하여 파면되었다가 다시 복관되어 1616년 新安縣監으로 나갔다.

27) 『사천시첩』 하첩.

萬曆 戊午年(1618) 가을에 내가 斜川에 있었는데 우연히 陶淵明集을 보다가 이 시(<遊斜川>)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고금에 (이름이) 일치함을 기뻐하였다. 卷首에 이를 써서 여러 노대인과 벗들에게 화답하기를 구하니 참월하여 황송하다.²⁸⁾

위의 글은 도연명의 <유사천>시와 병서를 기록하고 이경엄이 덧붙인 것이다.²⁹⁾ 1618년 가을에 사천에 머물러 있었던 이경엄이 비로서 陶淵明의 <遊斜川>시를 보고 자신의 전장 이름과 陶淵明의 斜川이 같음을 발견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즉 이미 사천팔경을 지정하고 <사천장팔경도>도 완성되었고 임숙영의 제화시까지 받아놓았을 때까지도 斜川庄이 陶淵明의 斜川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경엄은 자신의 전장과 도연명의 <유사천>시와의 연관성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 이경엄이 陶淵明의 斜川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전장이 陶淵明의 斜川과 이름이 같음을 재삼 확인하고, 陶淵明의 斜川이 지니는 歸去來의 의미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경엄이 八景의 지정, 別墅圖 제작, 八景詩 제작 등의 여러 문화적인 장치를 통해 자신의 전장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望外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천장이 단순한 별서나 전장이 아니라 陶淵明의 歸去來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陶淵明의 歸去來는 사대부의 出處觀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도연명은 儒家的 出處觀으로 세상을 마주하여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실에서 그 도리가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울분을 쏟아내고 歸去來하였다. 朱熹는 도연명이 유교의 이념을 품었으나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울분을 안에 감추고 은둔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렇기에 그의 시가 호방한 기운을 띤다고 칭송하였다. 도연명 시의 뛰어난 점은 그

28) “...萬曆戊午秋, 景嚴在斜川, 偶閱淵明集, 見有此詩, 樂其古今一致. 書題卷首, 乞和于諸老大人前及知舊僉契, 僭越惶悚.”(이경엄, 『斜川詩帖』 夏帖)

29) 조규희가 전개논문(2004)과 박사논문에서 이경엄의 이 글을 통해 斜川庄과 도연명의 斜川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호방한 기운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平淡하고 자연스러운 표현 속에 감추고 있는 미학에 있다고까지 하였다.³⁰⁾ 이렇듯 도연명은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유가적 출처관의 실천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다.

도연명의 귀거래에 대한 동경은 고금에 있어온 것인데, 특히 광해조에는 도연명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귀거래를 실천하거나 유배를 가더라도 배소를 歸去來地로 인식하는 문인들이 다수 있었다. 申欽(1566~1628)이 춘천에 유배되었을 때, 대량의 <和陶詩>³¹⁾를 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³²⁾ 자의나 타의로 정계에서 물러난 선비들이 자신의 처지를 陶淵明의 歸去來에 비유하며 스스로를 위로한 것이다.

이경엄 역시 자신의 전장에 도연명의 귀거래의 의미를 부여하여 은거의 논리를 찾고 그러한 의미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이미 사천장을 기념할 만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시키려 하였던 차에, 陶淵明의 歸去來의 의미까지 연계 되자 그러한 기념 작업이 더욱 의미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경엄은 위의 글을 짓고 <유사천>시를 卷首에 기록하여 화답시를 여러 어른들에게 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유사천> 차운시를 지었다.³³⁾

이경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부친 이호민 역시 크게 동조하면서, 다음의 시문을 적어 아들의 뜻을 가상히 여겼다.

龍門山の 서쪽에 별천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내 선조의 묘가 이곳에 있다. 옛 이름은 舍那인데 舍那는 대개 불교 용어이니, 高麗의 승려 普愚가 이 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불교 용어를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일찍이 陶淵明의 『靖節集』에 小引을 아우른 <遊斜川>詩가 있음을 보았는데, 이 골짜기 또한 ‘斜川’이라 이름하여 후대에 잘못을 입을 줄 어찌 알았겠는가? 우리 집 아이 景嚴은 지명이 같음을 기뻐하고 돌아갈 바가 있음을 즐거워하여 드

30) 『朱子語類』권140, 「論文 下」. 陶淵明詩, 人皆說詩平淡. 據某看, 他自豪放, 但豪放得未不覺耳.

31) 申欽, <和陶詩序>, 『象村稿』 권56.

32) 김주백, 「象村 申欽의 <和陶詩> 연구」, 『漢文學論集』10, 단국한문학회, 1992.

33) 『사천시첩』冬帖의 마지막에 이경엄의 <유사천> 차운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戊午(1618)菊月石門李子陵稿”라 기록되어 있다. 즉 이경엄은 1618년 가을에 도연명의 <유사천>시를 발견하자마자 차운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디어 舍那를 고쳐 斜川의 글자를 쓰고 그 아래에 집을 지었다. 나는 우리 아
이의 마음씀이 부지런함을 가상히 여기면서 내 나이가 이미 늙은 것을 슬퍼하
고, 여기에서 노닐 기회가 없음을 서글퍼하며 선생의 시 10韻에 따라 그 뒤를
이으니 훗날에 보는 자들이 그 참람됨을 용서하면 다행이겠다.³⁴⁾

이호민의 나이 67세가 되는 1619년에 쓰인 글로 도연명의 <유사천> 10
운에 차운한 시에 붙인 서문이다. 당시 城南에서 대죄 중이던 이호민은 선
영 아래 사천장을 경영한 아들의 현명한 처세를 기뻐하면서도 살아서 풍류
를 즐길 시간이 얼마 없음을 한탄한다고 하였다. 뒤이은 차운시에서 도연명
의 정절을 기리고 우연히 이름이 같은 이곳에서 노닐겠다는 뜻을 나타냈
다.³⁵⁾ 이호민의 서문 마지막 부분과 시의 ‘살아서 노닐고 죽어서 다시 묻힐
(生遊死便埋)’ 부분은 새롭게 경영한 전장이 ‘살아서 생활의 기반이 되고,
죽어서 묻힐 장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편, 이호민의 이 글에
서 이경엄이 도연명의 <유사천>시를 보고 옛 지명 舍那를 고쳐 斜川이라
이름하였다고 한 것은, 舍那寺를 斜川寺로 개명하고 마유산 일대의 지역
이름을 斜川으로 고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舍那寺는 고려초에 창건한
뒤 盧舍那佛을 봉안한 데에서 절의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斜
川은 ‘舍那’를 음차하여 다른 한자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³⁶⁾

이후 이경엄은 부친의 화운시를 시권에 붙이고 이를 일족인 李廷龜에게
보여 시문을 구하였다. 이에 이정구는 앞서 살핀 <斜川庄八景圖詩序>를
써서 화답하였다. 그리고 이경엄은 沈喜壽, 柳根과 같은 원로대인에게 시문
을 구하였다. 그러나 光海朝의 위험한 정국 하에 이 시권에 자유롭게 화답

34) 龍門山之西, 有洞天泉石之勝, 吾先祖墓在焉. 舊號舍那, 舍那, 盖佛語也, 豈以麗僧普愚嘗居是
洞, 而用佛語也. 嘗閱靖節集, 有遊斜川詩并小引, 安知是洞亦名斜川, 而被誤於後耶. 家豚景嚴,
喜地名之相同, 而樂依歸之有所, 遂革舍那, 而用斜川字, 仍築室其下. 余嘉吾兒用心之勤, 而悲
吾年之已老, 悵茲遊之無幾, 乃依先生詩十韻, 係于下, 後之覽者, 幸恕其僭越也. (李好閔, <斜
川次陶靖節先生韻并序>, 『五峯集』 권6. 『사천시첩』春帖)

35) 淵明纔五十 已懷樾下休 況吾六十七 胡不樂此遊 地名亦相同 千載希風流 緬思當時人 亦有波
中鷗 雲峰倚天碧 不下層城丘 曠然獨秀勢 吟賞付吾儔 生遊死便埋 未死酒相酬 從知百年內 幾
年如今不 君子有遠抱 不盡終身憂 來遊且可忘 行樂非徒求

36) 훗날 丁若鏞은 楊根 일대에 살면서 이 지역을 읊은 시문을 많이 남겼는데, ‘斜川寺’의 이름
이 자주 보인다.

할 수 있는 문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명망있는 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遠竄되거나 자발적으로 향리에 숨어 살았기 때문이다. 결국 仁祖反正 이후에 귀양 가 있거나 낙향했던 문인들이 다시 도성에 들어온 연후에 이경엄은 이 시권을 여러 문인에게 돌려 시문을 얻었다.³⁷⁾

이경엄은 이러한 노력을 30여년에 걸쳐 기울여서, 선배 문인과 벗들에게 <사천장시권>을 보이고 거기에 부칠 시문을 구하였다. 그는 이를 중년 이후의 지속적인 과업으로 삼았다고 하겠는데, 그만큼 사천장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하였던 것이다. 한편 분량이 늘어나게 된 <사천시권>은 뒤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春夏秋冬의 詩帖으로 다시 제작되어 현재까지 전해진다.³⁸⁾ 새로 시첩을 엮을 때 제작 연도 순서대로 시문을 수록하지 않고 무작위로 실었다.³⁹⁾ 다만 春夏秋冬의 첫머리에 서문 격의 글을 배치하였다. 그래서 춘첩에는 1617년에 지은 임숙영의 <사천장시권서>, 하첩에는 1618년에 이경엄이 적은 도연명의 <유사천>시와 서, 추첩에는 1619년에 沈喜壽가 지은 서문과 <유사천>차운시, 동첩에는 1619년에 柳根이 지은 <제사천장첩병서>를 수록하였다.

그런데 동첩에 실린 尹根壽의 글은 斜川庄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1605년에 夫餘수령으로 나가는 이경엄을 보내는 윤근수의 시이다.⁴⁰⁾ 여기에는 後記가 기록되어 있는데, 윤근수가 당시에 이별의 시를 지어서 보내주었으나, 그 別章帖을 병자호란 때 잃어버렸다가 1646년에 윤근수의 손자 尹挺之가 얻어 주었으므로 덧붙인다⁴¹⁾고 하였다. 따라서 『사천시첩』 형성의 완료 시점은 164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도별로 제작된 관련 시문은 다음과 같다.

37) 현재 확인되는 『사천시첩』 소재의 시문의 대부분이 인조반정 후에 정국이 어느정도 안정된 시점에 제작된 것이다.

38) 현재와 같은 『사천시첩』을 제작한 것은 이경엄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39) 흔히 시첩을 편집할 때 시문의 배열에는 특정한 의도가 개입되게 마련인데, 『사천시첩』은 춘하추동 4개의 첩의 편집방법과 특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40) 윤근수, <奉送扶餘李知縣景嚴十二韻>, 『月汀集』 권1. 『사천시첩』 冬帖.

41) 此卽月汀尹相公(根壽, 子固), 於萬曆乙巳七月送余別章. 而其特別章帖, 失於丙子兵火. 今因其孫尹丹陽挺之氏, 得而追附于此(丙戌秋識).

	八景詩	<和遊斜川詩>	비고
1617	임숙영(추첩) 김중칭(하첩)		
1618		이경엄(동첩)	이경엄이 쓴 陶淵明의 <遊斜川>(춘첩)
		정백창(하첩)	
1619		이호민(춘첩, 『五峯集』6)	
		이정구(춘첩, 『月沙集』40)	
		유근(동첩, 『西峒詩集』1)	
	심희수(추첩, 『一松集』1)	심희수(추첩)	
			임숙영, <斜川庄詩序>(『疎庵集』5)
1621		한준겸(춘첩)	
1622			이원익의 簡札(춘첩)
	이수광(추첩, 『芝峯集』2)	이수광(추첩, 『芝峯集』7)	
1623		이안눌(하첩, 『東岳集』23)	
		윤방(춘첩)	
1624		목대흠(하첩, 『茶山集』1)	
		정경세(동첩, 『愚伏集』1)	
1625		홍서봉(춘첩)	
		조희일(하첩, 『竹陰集』9)	
		이식(하첩, 『澤堂集』3)	
			이안눌이 쓴 東坡·象村의 <和陶詩>(춘첩)
1628		장유(춘첩, 『谿谷集』23)	
		이민구(하첩, 『東州集』5)	
	이경석(추첩)	이경석(추첩, 『白軒集』2)	
		이경직(동첩)	

	八景詩	<和遊斜川詩>	비고
1631		조익(하첩, 『浦渚集』1)	
1632	이경전(하첩, 『石樓遺稿』1)		
	정백창(하첩)		
1639		이경의(하첩)	
	신익성(하첩, 『先集, 續稿』14)	신익성(하첩, 『樂全堂集』9)	신익성<書斜川帖後> (하첩, 『先集, 續稿』14)
1641		박미(하첩, 『汾西集』1)	
1645		윤신지(춘첩, 『玄洲集』6)	
1646			1605에 윤근수가 지은 <奉送扶餘李知縣景嚴十二 韻> (동첩, 『月汀集』1)
?		이준(하첩)	
?			이응기가 쓴 시 <敬呈懷感>(하첩)
?			김현성이 쓴 斜川八景 소표제(추첩)

4. 斜川庄의 학술·문화적 의의

『사천시첩』에 수록된 시문을 지은 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광해조에 핍박받았던 인물들로서,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생각하거나 전날의 고초를 돌이켜보며 일찍 전원에 은거해 陶淵明의 뜻을 실천한 이경엄을 칭송하였다. 즉 정치적 실세 속에도 斜川庄을 통해서 도연명의 高標清節한 기개와 歸去來의 풍류를 따른 그의 현명한 행동에 공감하였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으나 언젠가 정계에의 복귀를 기대했던 자신들의 지난날의 행적을 斜川庄의 이경엄처럼 陶淵明에 견준으로서 은거의 논리와 정당성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인 선망 외에도 이경엄이 재지적 기반이 튼튼한 선영에 경제적 기반을 갖춘 전장을 경영하였다는 이면적인 선

망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경엄은 정치·경제적 토대가 되는 전장을 경영하면서도 도연명의 歸去來의 의미를 부여하여 전장 경영과 은거의 사상적 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경엄은 자신의 전장이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임숙영이 지은 詩序에서 사천장이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⁴²⁾

…전략…

이에 거문고와 노래가 손님을 불러 피리와 거문고의 묘한 음을 떨치고 시 주는 벗을 구하여 술잔을 주고받는 흥이 있네. 왕손은 절로 이르러 과거급제의 기쁨을 말하고 시골 늙은이를 만나면 농사짓는 기술을 묻는다네. 비록 서쪽 두둑에 일이 있어도 손님 찾는 일 그치지 않고, 東戶에 일이 없어도 홀로 저술하는 뜻을 잊기 어렵네. 이로 말미암아 詞鋒이 이어져 月峽의 풍운을 끌어당기고 逸韻이 종횡하여 烟阜의 초목에 가득하구나. 평생에 소매를 나란히 한 이로 蘭室의 어진이 아님이 없으니 곧바로 시를 지어 붓을 적서 柏梁臺에 이름을 날리는 아름다움이 있네. …후략…⁴³⁾

이 글은 사천장에서의 풍류를 엿볼 수 있다. 빼어난 경관이 있는 사천장에서 벌이는 시회의 흥겨움을 나타낸 것이다. 벗들을 구하여 음악과 시를 즐기니 蘭亭故事와 柏梁臺의 풍류라고 하였는데, 이경엄은 斜川이라는 전장을 경영함으로써 경제적인 풍요를 축적할 수 있었고, 다시 그곳을 문인의 풍류의 장소로서 제공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실세한 문인이 많았던 시절에 이경엄의 삶은 매우 드물고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42) 권경록은 이경엄의 사천장이 문인들의 문학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고 주장하며, 이경엄이 벗들을 사천장에 초대하여 질탕한 풍류를 즐겼다고 하였다.(권경록, 앞의 논문, 24-25면) 그러나 이경엄이 산수를 즐기고 시문을 창작하였다는 근거로 삼은 자료는 바로 陶淵明의 <遊斜川并序>이다. 따라서 이경엄의 사천장이 당대의 이상적인 문학공간이었다는 그의 주장은 다른 근거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43) …전략… 乃有琴歌留客, 振絲竹之妙音, 詩酒求朋, 動壺觴之逸興. 王孫自至, 共談攀桂之歡, 野老相逢, 卽訪種苗之術. 雖復西疇有事, 曾不廢於招尋, 東戶無爲, 獨難忘於述作. 由是詞鋒絡繹, 彌月峽之風雲, 逸韻縱橫, 滿烟阜之草木, 平生連袂 無非蘭室之賢, 卽事凝毫, 名擅柏梁之美. …하략…(『疏庵集』 권5)

특히 楊根 일대에는 이경엄이 사천장을 경영하기 전에도 많은 문인들이 은거하였다. 광해조에 문인들이 정치적인 화를 피하기 은거의 장소로 삼은 別墅가 공교롭게도 楊根과 砥平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任叔英·鄭百昌 등의 인물들이 驪州 일대에 은거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로서 이들은 서로 왕래하며 시문을 주고받기도 하였다.⁴⁴⁾ 그래서 사천장을 경영한 이경엄은 주변에 은거해 있던 선배 문인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고 시문을 수창하였다. 1618년에 이경엄은 <斜川洞에 술을 마련하여 灘上의 여러 벗들을 초대하니 이를 질탕하게 즐기며 얘기를 주고 받는 사이에 陶淵明의 遊斜川詩의 운을 써서 오늘날의 斜川의 노닐을 기록하고 寒灘子 鄭百昌에게 화답하여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노라.(置酒斜川洞, 邀與灘上諸友, 共之跌宕談話間, 用淵明遊斜川詩韻, 以記今日斜川之遊, 而仍屬寒灘子和教)>⁴⁵⁾의 제목으로 화운시를 짓자, 정백창이 <내가 서울에서 灘上으로 돌아와 石門 李景稷道兄과 더불어 斜川에 노닐었다가 주인이 淵明의 시에 화답한 것에 차운하다(余自洛還灘, 與石門道兄同遊斜川, 次主人和淵明詩韻)>⁴⁶⁾의 제목으로 화답하였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사천장 일대에 일종의 문화벨트가 형성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다. 특정한 공간이 중심이 되어 학술과 문화를 교류하는 양상은 이미 전대에도 있어왔으나, 이 시기에는 劉希慶의 枕流臺처럼 일정한 사상과 문학적 지향을 공유하는 동호인집단이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예가 나타난다.⁴⁷⁾ 그런데 이경엄의 사천장은 서울이 아닌 近畿 지역에서 학술과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비록 근기라고는 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그러한 학술과 문화의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류 주체와 대상이 서로 오고가기에 불편이 없어야만 한다. 이때 사천장이 위치한 二水 유역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뱃길로 남한강에 은거한 임숙영·정백창 등과 손쉽게 오고갈 수 있기 때문이다.

44) 김덕수, 전계논문.

45) 『사천시첩』동첩.

46) 『사천시첩』하첩.

47) 고영진,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서울 枕流臺學士의 활동과 그 의의」, 『서울학 연구』3, 서울학연구소, 1994.

이외에도 이경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李植(1584~1647)이 砥平에 은거하였다. 이식은 본래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외가의 전장이 남한강 물줄기인 驪江에 있는 까닭에 驪江가의 康丘에 별서를 지니고 있었다.⁴⁸⁾ 1616년에 폐모론으로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이식은 점괘로서 砥平에 澤風堂을 경영하였다.⁴⁹⁾ 그래서 이식이 이경엄의 <사천시권>에 시를 써줄 때 다음의 序를 붙였다.

내가 용문산의 동쪽에 살았는데 斜川은 서쪽에 있었으니, 主人使君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은거한 것이 거의 같은 시기였다. 그런데 이른바 斜川帖에는 화답하지 못하였으니, 감히 졸렬한 재주를 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개 實景을 노닐고 읊조리느라 글로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 市井에 있으면서 그 그림을 보고 諸公의 시편을 읊조리니 어찌 慨然한 마음이 없겠는가? 운자에 따라 나타내기를 그만 둘 수가 없는 바이다.⁵⁰⁾

비슷한 시점에 각각 용문산의 동쪽과 서쪽에 은거하여 서로 오고가며 교류하였으므로 이식은 이경엄의 斜川帖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식은 實景을 노니느라 글로 쓸 여가가 없어서 이에 화답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임숙영·정백창이 이미 있었고 이식이 또한 이웃에 은거하였기에, 이경엄은 이들과 자주 사천장 주변을 노닐며 교류하였을 것이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東陽尉 申翊聖이 廣州 沙阜村(현재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에 대규모의 전장을 경영하였다.⁵¹⁾ 본래 平山 申氏家는 김포에 선영이 있었지만, 신익성은 풍광이 수려한 양수리 일대를 눈여겨 보았다가, 1627년에 부인인 貞淑翁主가 졸하자 그곳에 묘소를 썼다. 이듬해에 부친

48) 이종묵, 「지평 백아곡의 澤風堂과 李植」, 『문헌과 해석』 20, 2002.

49) 李植, <澤風堂志>, 『澤堂集, 別集』 권10.

50) 僕居龍門之東, 斜川在迤西, 又與主人使君公同好, 前後棲遲略同時. 惟所謂斜川帖者未曾攀和, 非但不敢銜拙, 盖方游詠實景, 未暇以其文也. 今居市井乾沒中, 閱其圖, 誦諸公什, 寧無慨然, 隨韻致意, 所不得辭.(李植, <題李子陵景嚴斜川帖>, 『澤堂集』 권3)

51)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문학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05, 113-120면 ; 「東陽尉 申翊聖의 駙馬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222-227면.

申欽이 별세하자 역시 묘소를 마련하고 김포에 모셨던 어머니의 묘소도 옮겨와 합장하였다. 그리고 신익성은 이 일대를 東淮라 명명하고 적극적으로 전장을 경영하여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신익성의 전장은 이경업의 사천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신익성은 사천시침에 붙인 화운사에서 이경업이 일찍 퇴거지를 정해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아온 현명함을 부러워하고, 이제 자신도 斜川庄을 마주보는 곳에 집을 지었으니 뱃길로 오고가며 시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아취를 비길 데가 없다고 하였다.⁵²⁾ 이경업과 신익성의 교유는 이후 지속되어 만년에까지 이르렀다. 이경업이 예순이 넘은 나이로 심양을 다녀온 후의 시문을 정리한 시고에 申翊聖이 써준 <書李子陵西行唱酬後>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서 시위할 때 나는 摠管으로 어명을 받아 궁성의 군대를 통솔하여 이 때 延川公 李景嚴과 동료가 되었다. 밤낮으로 머리를 모아 함께 힘쓴 것은 올바르게 죽는 것이었다. 그런데 때때로 부질없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다행히 이곳을 벗어나면 곧바로 벼슬을 그만두고 가벼운 배와 짧은 노로 牛渚와 斜川 사이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면 족하겠다고 하였다. 옆에서 들던 자가 눈으로 비웃으며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이라 여긴듯하였다. 우리 두 사람 역시 이 일은 반드시 실행되지 못하리라 생각하였다. 나라가 조금 안정되자 나는 병이 나서 淮上으로 들어갔고 延川公은 휴가를 내어 斜川庄에 있어서 수레로 오고가며 시골에서 술마신 것이 여러 차례였다. 매번 서로 볼 때 마다 옷깃을 풀어 술잔을 기울이고 술마시고 나면 擊節歌를 노래불렀은즉 포위중에 한 부질없는 말이 左契를 맞춘 듯 한 것이니 이는 인간사 일단의 기이한 일이다. 당시에 눈짓으로 비웃으며 반드시 불가하다고 여긴 자가 우리들이 서로 노니는 즐거움을 듣는다면 또한 기이한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하략...⁵³⁾

52) 五十卽頽齡 懷懷行宜休 羨子早得所 一壑占上游 村同栗里僻 水似斜川流 宦迹縱班鷺 深盟在沙鷗 余亦有薄業 結屋依先丘 幸與子居近 江湖且爲儔 去來駕輕艇 觴詠聊自酬 吾儕趣自逸 世人能知不 浩然賦歸來 嗒焉忘喜憂 緬懷陶元亮 千載兩相求(신익성, <李子陵斜川庄帖次淵明韻(景嚴)>, 『樂全堂集』 권1)

53) 南漢之役, 余以摠管, 承命統禁旅衛宮城, 時延川公同爲僚案, 日夜聚首而所共勉者, 在於明白死. 而時以漫語相籍曰, 天幸得脫吾儕, 便卽辭事歸, 以輕舟短棹, 還往於牛渚斜川之間, 以遣餘

신익성과 이경엄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시위하면서 전란이 끝난다면 牛川과 斜川으로 돌아가 편히 여생을 보내겠노라 소망하였다. 생사를 오고가는 전쟁의 와중에 이러한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듯한 것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이경엄이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지난날 남한산성에서 약속하였듯이 둘은 東淮와 斜川을 오가며 회포를 풀었다.

특히 신익성은 『사천시첩』의 存沒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다음 申翊聖의 글은 그 사정을 보여준다.

子陵氏가 일찍이 만권의 책을 龍門山의 석실에 소장해 두었는데, 대개 집안이 대대로 책을 좋아하여 책을 모으는 일에 부지런하기 때문이었다. 요즘 소장된 것 중에 斜川帖을 꺼내 나에게 시를 구하였는데 병자년의 병화가 있었다. 나는 재빨리 子陵氏에게 돌려 보낼려고 종놈에게 맡겼으나, 경황이 없어 실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이윽고 병화가 온 산천에 미쳐서 石室의 장서도 적군의 주둔지가 되어 모두 없어졌으나, 斜川帖만은 종놈이 간직하고 있어서 난이 평정된 연후에 다시 子陵氏의 소유가 되었다. 올 봄 子陵氏가 斜川으로 가면서 이 시첩을 가지고 淮上의 나를 방문하였기에 함께 두루마리를 펼쳐 보며 감개에 젖었다. 나는 자릉씨에게 말하였다. “이것을 석실에 소장하였다면 甌脫을 면치 못하였을텐데 종놈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이와같이 완연히 보존되었으니 조물주의 장난이 아니겠는가? 蒙叟⁵⁴⁾가 말하지 않았는가, 배를 골짜기에 숨겨놓았더니 함께 흠쳐갔다고.⁵⁵⁾ 또 이르기를 지극히 지혜로운 자는 危言(곧은 말)이 쓰이도록 피하지 않아도 세상의 부름을 받고 조물주의 뜻을 얻는다고 한다.”

아아, 나와 자릉씨는 남한산성에서 임금과 부친을 좇아 머리를 맞대고 서

生足矣. 傍人聞之者, 目笑以爲不可必之約, 吾兩人亦自以爲此事必不得遂矣. 泊國事少定, 余乃以病屏居淮上, 延川公以休沐在斜川庄, 命駕赴期, 爲田間飲數矣. 每一相觀, 輒披襟傾瀉, 酒後鳴鳴擊節歌呼, 卽圍中漫語, 若執左契, 是人間一段奇事, 當時目笑以爲不可必者, 聞吾儕從游之樂, 亦莫不以爲奇事也. …하략…(『樂全堂集』 卷8)

54) 蒙叟는 莊子이다. 莊子는 蒙縣 사람이다.

55) 夫藏舟於壑藏山於澤, 謂之固矣, 然而夜半, 有力者負之而走, 昧者不知也(『莊子注』 권3, 大宗師)

로 대하였는데, 또한 이 일을 말하려니 어찌 다시 이 시첩을 가지고 초가집 아래에서 읊조릴 줄 알았으리오? 우리들은 쓸쓸한 늙은이라서 비록 만권의 책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곱씹어서 바탕을 삼을 수 있으리오? 대개 차 다리는 화로와 술 항아리 사이에서 이 시첩 하나를 가지고 늘그막의 회포를 부치면 그만이다. 하늘은 이것을 子陵氏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직 물가의 장원에 살면 열흘도 안되어 흰 구름과 가까워지고, 상쾌한 기운은 내 옷자락에 스며드니, 가벼운 거룻배로 二水의 호반에서 날마다 객과 함께 하니 이것이 늘그막의 실제이다. 조물주가 진정 어떠한지 모르니 또한 알고 싶지 않다. 애오라지 그 속에 느낀바를 써서 돌려준다. 己卯年(1639) 늦봄 중순에 平山의 申翊聖이 기록하다.⁵⁶⁾

이경엄이 시첩을 신익성에게 보내어 시문을 구하였는데, 신익성이 미처 시첩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때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병자호란의 병화는 사천장에까지 미쳐서 그곳에 소장된 대규모 장서가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천장의 영화를 기록하고 노래한 <사천시첩>은 신익성이 보관하고 있어서 보존되었던 것이다. 만약 신익성이 시첩을 일찍 돌려보냈다면 이경엄이 家寶로 전할 목적으로 부지런히 명현들의 글을 받아온 사천첩 또한 유실되었을 것이다.

신익성은 사천첩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 있었음을 회상하고 감개에 젖게 된다. 더군다나 이경엄과 신익성은 남한산성에서 함께 시위하기도 하였으므로 서로의 인연이 깊음을 더욱 절감하였다. 이에 신익성은 이를 조물주의 장난이라 하면서 만권의 서적이 있다한들 늘그막이라 활용할 수 없었을

56) 子陵氏嘗藏萬卷書於龍門之石室, 蓋家嗜書, 爲書謀勤矣. 間抽斜川帖於藏中, 取詩於余, 而丙子之變化矣. 余亟璧還子陵氏, 付之僕夫, 倉卒不暇爲謀云. 俄而兵禍遍及山澤, 石室之藏甌脫盡矣, 而斜川之帖爲僕夫所護持, 難定復爲子陵氏之有. 今年春, 子陵氏將向斜川, 携是帖, 訪余於淮上, 相與開卷, 爲之歛衽(戲欠), 余謂子陵氏曰, 藏之石室, 不免甌脫, 付諸庸奴, 宛存如此藏, 非造物者把弄耶? 蒙叟不云乎, 藏舟於壑, 并與竊之, 又曰, 至智不謀危言之所以有契, 其能徵于世, 而得造物者意也. 噫, 余與子陵氏, 從君父於孤城中, 覆首相對, 亦嘗語及此事, 而焉知復携是帖, 吟嘯於衡茅之下哉? 吾儕凜凜暮矣, 雖有萬卷書, 曷然詛囑爲資. 蓋携此一帖於茶竈酒缸間, 以寓老懷足矣. 天以是餉子陵氏耶? 唯居川庄, 不由旬而近白雲, 爽氣龍余衣裾, 輕舸短檣, 日夕客與於二水之畔, 卽晚境實際, 而不知造物者定如何, 則亦且不欲爲謀矣. 聊所瀉感於中者, 書以歸之, 時己卯暮春中旬, 平山申翊聖識(신익성, <書斜川帖後>, 『先集, 續稿』권14)

것이니, 이제 진정한 귀거래를 二水에서 구가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즉 斜川庄에 만권의 도서가 구비되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대규모 장서가라 할 만한 사람들이 출현하였는데,⁵⁷⁾ 이경업의 延安 李氏家도 그 대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만권의 장서는 부친 이호민이 자주 明을 드나들며 다양한 책을 수집하면서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화적인 안목을 지녔다 하더라도 대규모 장서를 갖출만한 경제적 토대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경업 집안은 학문과 문화에 대한 안목을 갖춘데다가,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만권 도서를 수집하고, 近畿 장원에 이를 보관해 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권의 장서가 있는 斜川庄에는 수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그림을 감상하고 서적을 빌려 갔을 것이다. 사천장이 명소로서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이경업이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사천시첩』을 완성하여 명소화하는데 성공한 것도 있겠으나, 斜川庄이 풍류의 공간이자 만권의 장서를 구비한 학술의 중심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바대로 사천장이 병화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만권의 장서도 없어지고 말았다. 이후 斜川庄이 기능하였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은 淸陰 金尙憲(1570~1652)의 石室(경기도 미곡시 水石澗)로 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⁵⁸⁾ 김상헌은 1632년(인조 10)에 대사헌으로서 이조판서 李貴를 탄핵하다가 인조의 미움을 사서 벼슬을 물러나게 되자, 묘막 정도만 있던 石室에 祠堂을 증축하는 등 이곳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었다. 특히 김상헌의 石室은 점차 학문과 사상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아 갔다.⁵⁹⁾

김상헌은 이웃에 전장을 마련한 신의성과 매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

57) 대형 장서가의 등장과 明清 서적의 유통은 김영진의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고려대 박사논문, 2003, 25-34면)에 자세하다.

58) 이종목, 「강학의 공간 미호의 석실과 김상헌」, 『조선의 문화공간』3, 휴머니스트, 2006.

59) 이후 石室은 장동 김문 뿐 아니라 노론계의 학문과 사상의 중심지로 격상하는데, 1656년(효종 7)에 병자호란 때 증의로 순절한 金尙容과 척화활동을 버린 金尙憲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祠堂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고, 1663년(현종 4)에는 '石室'이라고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이곳에서 金壽桓 형제와 金昌協 형제 그리고 洪大容과 朴趾源 등 노론계의 대학자와 문인들이 배출되는 등, 石室은 조선후기 학문과 문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데, 이경엄과의 교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경엄의 斜川에는 이미 만권의 장서가 있었고, 신익성의 東淮 역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김상헌의 石室은 학문과 사상의 중심지로서 명성이 있었다. 따라서 斜川, 東淮, 石室이 위치한 楊根 일대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리잡아 갔다고 하겠다. 이경엄의 斜川은 田庄·別墅가 문화적인 교류지로서 기능을 한 가장 앞선 예라 하겠다.

5. 결론

본고는 李景嚴의 斜川庄 경영 과정과 명소화 과정을 살펴면서 조선후기 별서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사천시첩』 소재의 한시문과 이경엄이 지은 時調를 검토하여, 이경엄이 斜川庄을 경영한 시점이 1613년부터였음을 확인하였다.

이경엄은 자신의 전장 ‘사천’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작업을 벌였다. 첫째, 사천 주변의 경관을 八景으로 집약하고, 畫員인 李信欽에게 <사천장팔경도>를 제작하게 하였다. 둘째, ‘斜川’의 지명이 陶淵明의 <遊斜川>과 일치함을 확인하고는 사천장에 歸去來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사천장팔경도>에 도연명의 <유사천>시를 적어서 여러 명현 거공에게 보이며 시문을 얻었다.

한편, 이경엄의 사천장은 조선후기 새롭게 조성된 別墅와 田庄의 특성을 보여준다. 임진왜란 이후 전란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대부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규모 전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주로 先塋 주변 지역에 전장을 마련하고 별서를 지어서 경제적인 토대를 갖추었다. 그러한 별서와 전장을 기념하고 명승명소화하기 위해서 별서도를 제작하였는데, 이경엄의 사천장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경엄의 사천장의 경제적 성격은 斜川八景의 ‘砧橋勸農’에서도 확인할 있다.

또한 이경엄의 사천장은 문화와 학문의 교류지이기도 하였다. 아름다운

경관과 물산이 풍부한 사천에 많은 벗들을 초대하여 풍류를 즐기고 시문을 창작하였다. 특히 주로 주변에 별서를 지닌 문인들과 더불어 교유하였는데, 澤風堂의 李植, 東淮의 申翊聖, 石室의 金尙憲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특히 신익성과 김상헌 등이 楊根 일대를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이후로도 많은 문인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 이경엄의 斜川은 그러한 선구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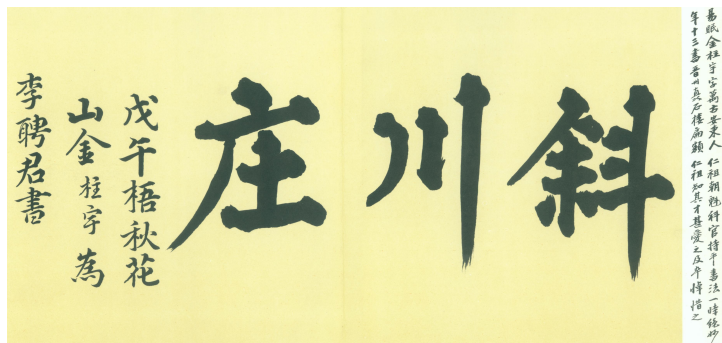


그림 1 <斜川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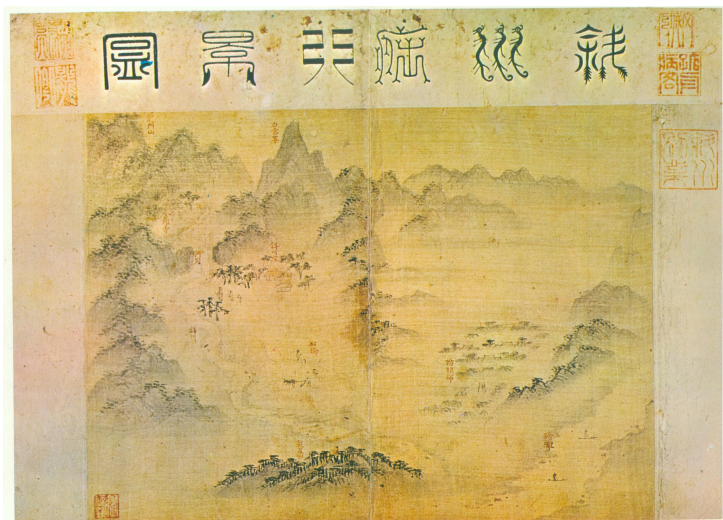


그림 2 이신흠의 <사천장팔경도>(『사천시첩(春)』, 1617년경, 34x56cm, _삼성미술관리움소장)

참고문헌

1. 자료

- 『斜川詩帖』, 寶眞齋 영인, 1972.(근역문화연구소 소장)
 오세창, 『槿域書畫徵』, 계명구락부, 1928.
 金尙憲, 『淸陰集』, 韓國文集叢刊 77.
 陸大欽, 『茶山集』, 韓國文集叢刊 83.
 朴瀾, 『汾西集』, 규장각 소장본.
 申翊聖, 『樂全堂集』, 韓國文集叢刊 93.
 ———, 『先集』, 후손가 가장 필사본.
 申欽, 『象村稿』, 韓國文集叢刊 71.
 沈喜壽, 『一松集』, 韓國文集叢刊 57.
 柳根, 『西垞詩集』, 韓國文集叢刊 57.
 尹根壽, 『月汀集』, 韓國文集叢刊 47.
 尹新之, 『玄洲集』, 韓國文集叢刊 續 20.
 李景奭, 『白軒集』, 韓國文集叢刊 95.
 李慶全, 『石樓遺稿』, 韓國文集叢刊 73.
 李敏求, 『東州集』, 韓國文集叢刊 94.
 李晬光, 『芝峯集』, 韓國文集叢刊 66.
 李植, 『澤堂集』, 韓國文集叢刊 88.
 李安訥, 『東岳集』, 韓國文集叢刊 78.
 李廷龜, 『月沙集』, 韓國文集叢刊 69.
 李好閔, 『五峯集』, 韓國文集叢刊 59.
 任叔英, 『疎庵集』, 韓國文集叢刊 92.
 張維, 『谿谷集』, 韓國文集叢刊 92.
 鄭經世, 『愚伏集』, 韓國文集叢刊 68.
 趙翼, 『浦渚集』, 韓國文集叢刊 85.
 趙希逸, 『竹陰集』, 韓國文集叢刊 83.

2. 연구논저

고동환, 「17세기 서울상업체제의 동요와 재편」,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고영진,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서울 枕流臺學士의 활동과 그 의의」, 『서울학

- 연구』3, 서울학연구소, 1994.
- 구덕희, 「선조대 후반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20, 1988.
- 권경록, 「『斜川詩帖』에 나타난 문인들의 문학공간과 그 형상화」, 『한국어문학연구』49, 한국어문학연구회, 2007.
- 김덕수, 「여강(驪江)의 청사(淸士), 수상칠인(水上七人)」, 『문헌과 해석』20, 2002.
- 김성룡, 『麗末鮮初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士族』, 역사비평사, 2001.
-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3.
-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文學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5.
- _____, 「東陽尉 申翊聖의 駙馬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 김주백, 「象村 申欽의 <和陶詩> 연구」, 『漢文學論集』10, 단국한문학회, 1992.
-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 이종묵, 「강학의 공간 미호의 석실과 김상헌」, 『조선의 문화공간』3, 휴머니스트, 2006.
- _____, 「지평 백아곡의 澤風堂과 李植」, 『문헌과 해석』 20, 2002.
- 조규희, 「所有地 그림의 시각언어와 기능-〈石亭處士幽居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3, 미술사와시각문화학회, 2004.
- _____, 「朝鮮時代 別墅圖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6.
- 진동혁, 「새 자료 李景嚴(1579~1652)의 時調」, 『시조학논총』12, 한국시조학회, 1996.
- _____, 「李景嚴의 斜川歸田歌 研究」, 『고시가연구』5, 1998.
- _____, 「李景嚴의 時調 연구」, 『국어국문학』118, 1997.
- 한명기,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 동향」, 『한국사론』20, 1988.
- _____, 「宣祖代 후반~ 仁祖代 초반 對明關係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A Study on the Leekyungum(李景嚴)'s operation Sachunjang(斜川庄)
and *A collected poems of Sachun*(斜川詩帖)

Kim EunJeong

A collected poems of Sachun consists of *Sachunjang Palkyungdo*(斜川庄八景圖), and many poetry which describe the Leekyungum's Sachunjang in Yangun. This thesis traced how Sachunjang became a noted place and outlined the culture of a country house in late Joseon.

Lee started to manage Sachunjang in 1613 earlier than the commonly known time. The background of the management was first; the political disorder in Prince GwangHae's reign. Many politician retired and managed the country house. Many noble man cultivated the farm near the family tomb during the recovery from the war. Lee's Sachunjang was the one of largest farm near the family tomb in Gyeonggi area. Second was economical income. Sachunjang was a manor which had large farm. One of Eight scenes showed the scale of the farm.

Beside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reason, Leekyungum formulated the management of the farmstead thorough the cultural devices. First, he arranged the scenery near Sachun as Eight scenes. He made Leeshinhum paint *Sachunjang Palkyungdo*. Second, he meaned Sachun as a Doyeonmyeong's Kuykurea(歸去來). Because the name of Sachun could be linked with Doyeonmyeong's poetry, *Yusachun*. Third, he wrote *Yusachun* on the *Sachunjang Palkyungdo* and sent it to many scholars to receive the responding poetry. These process of making notable place shows the character of the newly build villa and manor in late Joseon.

Also Leekyungum made Sachunjang as a place of the academic and cultural interchange. He invited many friends and held a poetry party. He collected ten thousand books and supported scientific research. Along the South Han river, there

are Leesig(李植)'s Tagpungdang(澤風堂), Shinyigseong(申翊聖)'s Donghoi(東淮), and Kimsangheon's Seogsil(石室). Leekyungum's Sachun was the model of the manor of neighboring capital city.

Keywords : Leekyungum(李景嚴), Sachun(斜川), A collected poems of Sachun (斜川詩帖), Eight scenes(八景), Villa, Manor of neighboring capital city, Estate painting(別墅圖), Sachunjang Palkyungdo(斜川庄八景圖), Kuykurea(歸去來), Political , Economical base, Academic and cultural interchange

접수일자 : 2009. 4. 10
심사기간 : 2009.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9. 5. 20